

초록번호 20-4

제 목	국 문	노동자 참여의 측면에서 본 소규모 사업장 보건관리 기술지원 사업의 평가						
	영 문	Evaluation of Occupational Health Services for Small-sized Enterprises in Terms of Labor Participation						
저 자 및 소 속	국 문	김선민 ¹ , 백도명 ² , 김은희 ³ , 전경자 ⁴ , 김지용 ⁵ , 하은희 ⁶ , 정혜선 ⁷ , 박혜숙 ⁸ , 한립의대 ¹ ,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² , 노동과건강연구회 ³ , 순천향대학교 간호학과 ⁴ , 동국의대 ⁵ , 이화의대 ⁶ , 신흥전문대학교 ⁷ , 인하의대 ⁸						
	영 문	Kim S ¹ , Paek DM ² , Kim EH ³ , June KJ ⁴ , Kim JY ⁵ , Ha EH ⁶ , Jung HS ⁷ , Park HS ⁸ Hallym University ¹ , Seoul National University ² , Soonchonhyang University ³ , Dongkuk University ⁴ , Ewha University ⁵ , Shinheung University ⁷ , Inha University ⁸						
분 야	산업보건		발 표 자	김선민				
발표 형식	구연		발표 시간	15분				
진행 상황	연구완료 (0), 연구중 () → 완료 예정 시기 : 년 월							
1. 연구 목적								
최근 몇 년 사이 노동부와 산업안전공단에서는 소규모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보건관리를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하여 왔다. 소규모사업장은 노동조합의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는 대규모 사업장에 비하여 노동자의 참여가 크게 저조한 것이 특징적이다. 이점을 감안하여 97년 시작된 소규모사업장 보건관리 기술지원사업에서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 모니터 요원을 설치하여 노동자의 참여를 고취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소규모사업장 보건관리 기술지원사업에서 강조하고자 한 바인 노동자 참여의 측면에서 이 사업을 평가하고자 실시하였다.								
2. 연구 방법								
1) 조사대상 : 전국의 소규모 사업장 보건관리기술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서비스제공기관의 제공자와 해당 사업장의 노동자와 사업주, 그리고 이를 지도하고 있는 산업안전공단 지도원중 일부를 추출하여 조사 대상으로 하였다.								
2) 조사 항목과 조사지의 개발 : 관련 전문가 회의에서 개발한 항목을 설문화하여 Pilot study를 실시하고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지를 완성하였다.								
3) 조사 : 위의 연구 대상에 대하여 개발된 조사지를 적용하였다. 우편설문과 현지 조사를 병행하였다.								
4) 분석 : 결과측면의 노동자 참여에 대하여 분석을 하였고, 각 사업장, 지역(지 도원), 국가 단위에서의 노동자 참여를 구조 및 과정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3. 연구 결과								
1) 결과 측면								
조사 대상 사업장의 모니터요원 들중 21%만이 이 사업의 내용을 알고 있었다. 서비스제공기관에서 사업을 수행할 경우 노동자의 의견이 반영된다고 느끼는 서비스 인력은 15%였으며, 이들은 사업주와 근로자의 인식부족과 협조가 부족으로 인한 서비스제공의 어려움을 가장 높게 평가하였다.								

2) 구조 및 과정

(1) 국가 수준

97년 산업안전공단 중앙본부에 중앙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분기마다 1회씩의 회의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 위원회에는 노동자의 참여가 보장되어 있지 않다.

(2) 지역 수준

지역에서는 산업안전공단 지역본부에서 지역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필요시 수시로 개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 역시 중소기업단체의 참여를 정하고 있으나 노동자의 참여구조는 없다.

또한 지역단위에서 사업자 간담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으나 모니터 요원을 대상으로 한 간담회는 명시화되어 있지 않고 질세로 소집한 지역도 두곳에 불과하다.

(3) 사업장 수준

모니터요원의 직책은 88%에서만 주임이하 사원이었으며, 단순 행정 및 연락 업무를 막고 있는 경우가 60%였다. 이러한 업무에 할애하는 시간도 주당 1시간 정도를 할애하는 경우가 64%였다. 특히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사업장을 방문할 경우 이들을 쉽게 만날 수 있다고 응답한 분획은 42%였다. 방문시마다 모니터 요원이 동일한 경우도 10%에 불과하였다.

4. 고찰

97년에 시행한 소규모사업장 보건관리 기술지원 사업에서는 모니터 요원제도를 두는 등 노동자의 참여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소규모사업장을 위한 보건관리사업에서 노동자의 참여가 기대한 만큼 성공적으로 이뤄지지는 않았다.

물론 소규모 사업장의 특성상 노조 결성률이 낮은 등 산업보건분야 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노동자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경향이 있으며 사업장의 경제적인 역량등에서 산업보건사업 자체가 활발히 이뤄지기 어려운 형편이다. 그러나 이 사업내부에서도 노동자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는 몇 가지 이유를 생각할 수 있는데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들 수 있다.

1) 모니터요원의 역할 강화

- (1) 모니터 요원의 자격 규정을 두어 경영자나 고위 관리자가 되지 않도록 한다.
- (2) 모니터 요원의 활동지침을 구체적으로 제작하고 이 능력배양을 위해서 국가 단위의 직무교육을 실시한다.
- (3) 50인 이하 사업장에도 100인이상 사업장에 두도록 되어 있는 명예산업안전 감독관을 선임하도록 한다.
- (4) 지역별로 혹은 업종별로 모니터요원의 간담회를 정기화하여 사례발표 및 토론 사업평가를 실시하도록 한다.

2) 홍보 강화 : 50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들의 이 사업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국가 차원에서 홍보를 강화한다.

3) 소규모 사업장내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개발한다.